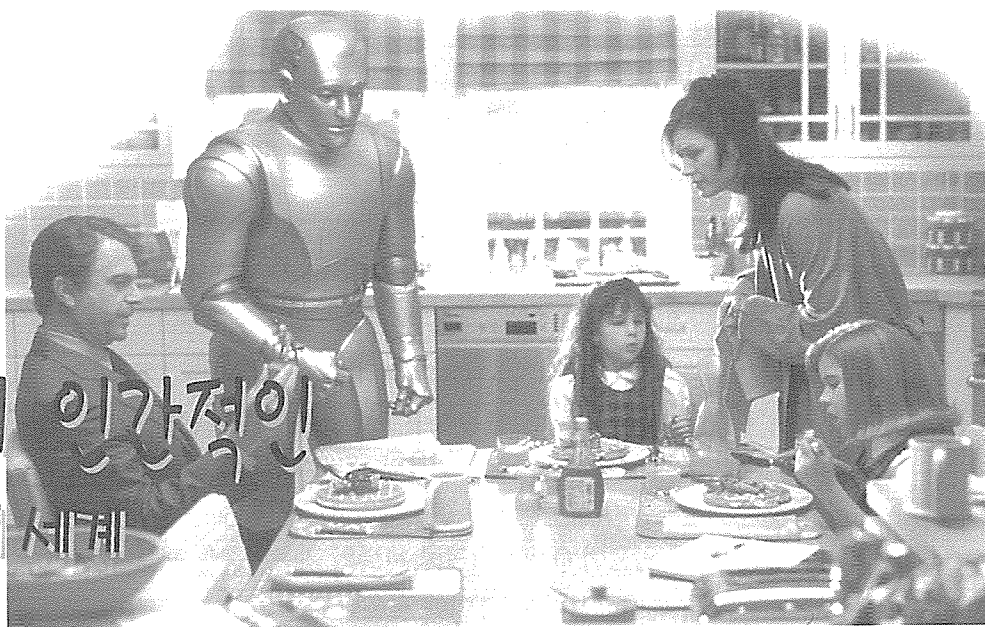


#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 - 영화 속 로봇의 세계



세상에서 인간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무엇일까. 과거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탕 등 온갖 종류의 유인원을 떠올리며 다윈의 진화론을 그려볼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N세대들의 대답은 하나다. 세상에서 인간에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로봇이다. 왜냐하면 로봇은 인간에 의해 점점 더 인간답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세계적인 SF 소설가이자 로봇 공학자이기도 한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는 유독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이 등장한다. 1950년 「I, Robot」이라는 소설에서 아시모프는 로봇공학의 세가지 기본적인 법칙을 선포했다.

제1법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간이 위험에 빠지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제2법칙, 로봇은 제1법칙을 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한다. 제3법칙, 로봇은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도 로봇에 관해서는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법칙은 많은 영화의 모티브가 되어왔다.

대표적인 것이 두뇌에 내장된 이 법칙 때문에 자신의 제작사인 OCP의 중역이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처치하지 못하는 '로보캡'이 있을 것이다. 당시 아시모프도 스스로 깨닫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3원칙은 오늘날 로봇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제품이나 기계장치들이 갖춰야 할 덕목 그대로이다. 어쩌면 너무나 휴머니티한 이 개념은 아시모프 이후 로봇의 역사를 바꿔놓는 개념이었다.

### 인간을 위협하는 로봇

그것은 고전영화 속 로봇과 비교해 보면 쉽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품 속 로봇의 존재는 세가지 법칙을 위반하고,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였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자에게는 일터를 로봇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다.

그 대표적인 예가 SF 영화의 고전이자 로봇 영화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메트로폴리스'이다. 노동자와 지배계급이 나뉘어 사는 미래도시 메트로폴리스에서 노동자들은 심하게 로봇에 대한 반감을 보인다. 이러한 정서는 사실 로봇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켄슈타인'에게서도 볼 수 있다.

마치 노동자 계급을 상징한 듯한 괴물 프랑켄슈타인은 불완전한 피조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것이 20세기 초 로봇을 지배한 이미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체코의 소설가에 의해 붙여진 '로봇'이라는 명칭은 무언가 어색하고, 불편한 존재였다.

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건만, '스타워즈'의 로봇을 봐도 알 수 있듯 어설픈 인간의 모방체이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 기분 나쁘게 인간을 닮은 인형, 또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라는 식으로 인식돼 사람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1938년에 미국의 SF 작가 레스터 텔 레이가 「사랑스러운 헬렌」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면서 로봇도 나름대로의 '인격'을 부여받는 전기가 마련된다.

이 작품에는 인간과 똑같은 지성과 감정을 지닌 여성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 선구자적인 소설가들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로봇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인간의 친구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화 속 로봇은 오랫동안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명배우 윌 브린너가 로봇 총

세상에서 인간에 가장 가까운 존재는 바로 로봇이다.

로봇은 인간에 의해 점점 더 인간답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또 영화 속에서의 로봇은 인간의 거울과 같은 존재로

우리와 가장 닮았지만 영혼이 없다는 설정은 황폐해진 인간의 내면을

말해주는 것 같다. 영화 속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을 만날 때마다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李相鎔  
(영화평론가)

잡지로 나오는 1973년작 ‘이색지대’ (Westworld)는, 일단 결정된 임무는 완수될 때까지 냉혹하게 수행하는 로봇의 무자비함을 매우 실감나게 묘사했다. 가끔 TV에서 재방영하는 이 영화는 인간이 만든 관광지가 하루 아침에 로봇들의 반란으로 초토화되는 끔찍한 미래를 상상해서 그렸다.

또 다른 악당 로봇의 등장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일약 스타로 만든 ‘터미네이터’ (1984년). 질긴 기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좀 심오하게 따져보면 로봇이라는 시선 아래에는 타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종 편견주의도 숨어있다.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는 착한 로봇은 어디에 있을까. 아시모프의 소설을 영화화한 최근작 ‘바이센테니얼 맨’을 보면 우리에게도 친근한 코미디 배우 로빈 윌리엄스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으로 등장한다. 마틴의 새로운 식구가 된 가사 로봇 앤드류는 주인의 배려로 특별히 창의적인 일에 몰두할 특권을 부여받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인간이 지닌 호기심과 지능을 갖춘 불량로봇이지만 마틴의 식구들, 특히 작은 아씨는 앤드류와 깊은 유대를 쌓는다.

그리고 앤드류는 그 과정 속에서 작

은 아씨를 사모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사업으로 번 돈을 가지고 ‘자유’를 얻은 앤드류는 이제 스스로 세상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몸 또한 인간에 가깝게 바꾸어 간다.

‘자유’를 얻고자 하는 노력과 인간임을 인정해달라는 투쟁은 법정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앤드류의 사랑은 대를 물려, 작은 아씨의 손녀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시모프의 소설에는 로봇을 인간보다 진화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독특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에 매료된 작가는 아시모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 타계한 세계적인 감독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아이즈 와이드 셋’을 완성한 이후 ‘A.I.’라는 SF 영화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큐브릭이 타계한 뒤 스티븐 스필버그 손에 새로 맡겨졌다.

### 시대따라 인간의 내면 반영

71년에 출간된 「스탠리 큐브릭 연출」이란 책에 실린 대담에서 큐브릭은 “나를 가장 매혹시킨 주제는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지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기계의 지능은 인간의 지능만큼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특정한 사안에 관해 한번 정보를 입력받아 프로그래밍화한 컴퓨터는 그 일에 관한 한 어떤 천재 인간보다 훨씬 지적인 노동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좀 끔찍한 전망이므로 많은 사람이 이 점에 동의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 최소한 ‘바이센테니얼 맨’을 보면 로봇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80년대의 SF의 걸작 ‘블레이드 러너’에는 인간을 용서하는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

인간을 아버지로 모신 안드로이드는 수명이 다해 죽음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괴롭혀 온 추적자 블레이드 러너를 용서한다.

이러한 이미지들 속에는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어있음은 물론이다. 그런 점에서 로봇은 인간의 거울과 같은 존재다. 우리와 가장 닮았지만, 영혼이 없다는 설정은 황폐해진 인간의 내면을 고스란히 말해주는 것 같다.

그리하여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을 영화 속에서 만날 때마다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영화 속 로봇은 그렇게 시대에 따라 인간을 비춰주고 있었다. ①7